

대회사

까치의 통일아리랑 !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자

장건(성남 까치의 통일아리랑 추진위원장/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 상임대표)

성남시의 시조(市鳥)인 까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날 은하수 강가에 다리를 놓은 까치 설화를 상징하듯, 평화와 통일로 민족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성남 까치의 통일아리랑’이 올해로 벌써 서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은 민족의 애환을 나타내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노동요)로서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독자성이 강한 노래이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민족적 동질성을 지탱한 민중의 가락입니다.

성남시민들은 지방자치시대(1991)가 열리면서 자발적으로 분단된 조국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이어야 한다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운동에 앞장서 매년 통일의 희망노래를 부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행사는 뜻을 같이하는 성남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추진해 왔으며 성남시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 까치의 통일아리랑’은 2년 여동안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실내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서 평화통일버스킹 공연, 어린이 통일 그림그리기대회, 통일자전거대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경색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는 성남시민들의 오랜 바람이, 까치의 통일아리랑 노래가락에 실려 철책선을 허물고 남녘 북녘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남까치의 통일아리랑 30주년 기념사]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주, 평화번영, 통일의 염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1992년 12월 대선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
민정부 시대가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통일에 대한 논의나 행사가 활성화되기 시작
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당시 성남에서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였
던 노동자, 청년, 학생, 종교인, 빈민층 등 각 시민 사회 단체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
통일 성남연합이 대중적인 통일 행사를 기획하여 1993년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하
여 성남을 상징하는 '까치'와 문화행사라는 의미의 '아리랑'을 합쳐 '까치의 통일아리
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2년부터는 '통일한마당'이라는 명칭으로 문화공연 중심의 까치의 통일아리랑과 더
불어 각 동별로 예선을 거쳐 본선을 진행하는 통일노래자랑, 참가 단체들의 친목을
위한 통일축구대회, 남과 북의 영화를 상영하는 통일영화제, 분단의 상징 지역을 함께
걸으며 통일의 의미를 찾아보는 통일기행, 통일 관련 글을 지어보는 통일백일장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는 문화행사중심으로 개최되면서 행사 명칭을 까치의 통일아리랑으로 다
시 변경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통일노래자랑, 통일축구대회, 통일영화제, 통일
기행, 통일백일장 뿐만 아니라 청소년평화페스티벌, 통일벼룩시장, 통일그림그리기대
회, 통일자전거대행진, 다양한 체험행사등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워지는 행사내용으
로 세대와 부문, 계층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평화
통일행사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 30년 남북간에 대화와 반목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까치의 통일아리랑'은
성남시민들의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
였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까치의 통일아리랑'은 시민참여형 대중적 통일행사의 형식
은 살리면서도 성남지역의 자주, 평화통일 의제를 대중화하는 역할을 추가해야 한다.

남북간에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전쟁
이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계속되던 지난 69년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
기는 수시로 되풀이 되었고, 평화적 생존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남북의 적대
관계와 분단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던 해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새로운 평화체제 구
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여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다. 북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선언하
였고,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한편, 대규모 한미연
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핵전략자산 전개 등 긴장을 고조시킬 군사행동도 예고하고 있
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자주, 평화운동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먼저 성남공군기지(서울공항)폐쇄하고 성

남시민의 품으로 찾아오는 범시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성남공군기지 주변의 수많은 성남시민들이 전투기 소음공해로 고통받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소음공해, 도시발전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성남공군기지(서울공항)을 폐쇄하고 생명평화공원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까치의 통일아리랑 30주년을 맞이하여 1993년 통일아리랑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성남지역에서부터 시민참여형 자주, 평화번영, 통일운동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마음을 모아갑시다.

제30회 성남까치의 통일아리랑 추진위원회 참가자 일동